



월계수 / *Laurus nobilis* L.

| 구분   | 설명   |
|------|------|
| 생물분류 | 식물   |
| 속국명  | 월계수속 |
| 과국명  | 녹나무과 |

|      |   |
|------|---|
| 과명   | Lauraceae   |
| 일반특징 | <p>요약설명 : 녹나무과 상록 활엽 교목으로 우리나라의 경상남도과 전라남도에서 재배하고 있다.</p> <p>분포지역 : 우리 나라는 경남과 전남에 식재한다.</p> <p>형태 : 상록 활엽 교목.</p> <p>크기 : 높이는 12m 정도 자란다.</p> <p>꽃색 : 노란색</p> <p>개화기 : 4월,3월</p> <p>잎은 어긋나고 긴 타원 모양이다. 가장자리가 물결 모양이고 진한 녹색이며 비비면 향기가 난다. 옆으로 뻗은 맥은 10~12쌍이다.</p> <p>꽃은 3~4월에 노란색으로 피고 잎겨드랑이에 촘촘하게 달린다. 암꽃과 수꽃이 각각 다른 그루에서 핀다. 꽃덮이는 4개로 깊게 갈라지며 각 조각은 거꿀달걀모양이다. 수술은 8~14개이고 암술대는 짧으며 암술머리는 둥글다.</p> <p>열매는 타원 같은 둥근 공 모양이다. 9~10월쯤에 흑자색으로 익는다.</p> <p>가지와 잎이 무성하며 어린 가지는 초록색이다. 가지를 자르면 향기가 나고 나무껍질은 흑갈색이다. 전체적인 나무 모양은 원뿔처럼 보인다.</p> <p>뿌리 근처에 싹이 많이 나와 모여나기한다.</p> <p>음지, 양지 모두에서 자란다. 어릴 때는 그늘에서도 크지만, 다 자란 나무가 되면 빛이 필요하다. 습기가 많고 땅의 깊이가 깊으며 기름진 토양이 적합하다. 또한 공기 중 습도가 중간 이상인 곳에서 자란다. 따뜻하고 습한 기후에서 잘 자란다. 대기오염과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내륙지방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. 연평균 기온 15℃ 이상이 적당하다. 씨앗을 뿌리거나 꺾꽂이를 하여 번식시킨다. 잎이 달린 가지로 화환을 만들어 경기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 주기도 한다.</p> |